

중·고등학생의 장애이해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 원 령*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 334명과 고등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학년,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 봉사활동 등에 따른 장애이해와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긍정적 태도 10문항, 부정적 태도 24문항, 중립적 태도 14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가지 요인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 성별,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합교육 경험에 따라서는 중립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은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중·고등학생의 장애이해와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장애,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이 명시된 이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완전참여와 평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장애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누려야 할 권리나 이익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으며, 여러 사회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거부되어 왔다. 비록 공교육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강조해 왔지만, 20세기 교육 현실은 그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초기의 일방적 통합교육에 대한 비판으로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상호접근이 가능한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과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

* 교신저자(wrlee@uu.ac.kr)

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Schulz & Carpenter, 1995; Thousand & Villa, 1992; 김병하, 2001; 박승희, 2003).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와 관점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해야 할 하나의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강영심 등(2005)은 통합교육을 분리교육에 비교해서 사회 윤리적, 법률적 그리고 심리교육적 측면에서 합당한 교육적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익히는데 통합교육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최세민, 2004). 그렇지만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교육이 더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을 이소현 등(2005)은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견해 속에서도 오늘날 통합교육의 흐름은 이제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배치하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학생과 교사, 학교 책임자, 그리고 행정가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래 학생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경실(2001)은 통합교육의 성공여부에 대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변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장애인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비호의적이었고, 부정적 편견이 일반적이었다(문동팔, 1997; 이규태, 1981). 또한 변찬석 등(1998)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80% 이상이 또래로부터 거부 혹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흥중(2002)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을 개인의 타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보았다. 특히 태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구명하기 위해 고안된 구성 개념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장애에 대해 어떤 인간적 가치를 부여하며, 어떤 태도와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교육 및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한우, 이원령, 2004).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장애인과의 접촉기회 등을 들고 있다(Esposito & Reed, 1986; 강수균 외, 2003; 우이구 외, 2004). 특히 국내에서는 통합교육의 경험을 장애에 대한 태도변화의 변인으로 들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김영성, 1999; 김종삼, 2000; 김창호 외, 2005; 노선옥, 2004; 여광응 외, 2004; 오유석,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합교육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장애아동과의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장애에 대한 지식 혹은 정보가 없다면, 통합교육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원만한 상호작용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아동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2003년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와 자매결연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이구 등(2004)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관리자의 인식부족과 필요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이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아동과 함께 교육받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물리적인 통합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장애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이해 혹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앞으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isher, Pumpian & Sax, 1998). 아직까지 국내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지역별 장애에 대한 태도연구(권주석, 2002),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태도연구(노선옥, 2004; 박미란, 2000),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중학생의 태도변화(나선희 외, 2004), 봉사활동 혹은 장애접촉 경험에 따른 고등학생의 인식(양홍식, 2005; 정준영, 2002) 등으로써 연구대상 및 변인이 대부분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이해와 인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장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먼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적합한 장애인식 교육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본다.
- 둘째, 중·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본다.
- 셋째, 중·고등학생의 통합교육 경험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중·고등학생의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본다.

다섯째,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차이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에 대한 태도와 요인분석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강수균, 조홍중, 2003). 예를 들어 부정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가 클수록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태도,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일반인, 나아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장애 그 자체는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일부로서 장애를 하나의 개성 혹은 특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정성이 배제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비호의적이며, 이러한 태도는 무지로 인한 편견에 기인된다(강수균 외, 2003; 문동팔, 1997). 특히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형성에 대해 이규태(1981)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인간지향에 의한 편견, 완전인간의 지향, 욕구 불만의 전위, 초자아의 결여, 전통복지의 해이 등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태도 개선의 중요한 관점으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접촉기회의 확대, 공정한 능력관의 보급, 과도한 경쟁의식의 배제, 가치관 등을 들 수 있다(Bak & Siperstein, 1987; Esposito & Reed, 1986, 우이구 외, 2004).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일수록 장애인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적으며, 인간 존엄의 정신에 기초하여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의 존재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장인협 등(1987)은 첫째,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다. 둘째,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적 성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967년 Siller는 장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요인 분석하여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한우, 이원령, 2004, 재인용). 장애인과의 접촉시 긴장감, 장애인과의 친교의 거부, 입학과 취업을 거부하는 일반적 거부,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돕고 교육하는 권위적 미덕,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정서,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과 왜곡된 동일시, 장애인에 대한 무능 등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서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봉사활동, 통합교육 경험,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때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첫째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장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이해와 태도를 보인다(Yuker, 1988; 민은식, 1990; 이종남, 1994). 둘째, 학년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김영성, 1999; 김종삼, 2000; 이종남, 1994; 이한우, 이원령, 2004). 셋째,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 장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송수영, 2001; 양홍식, 2005). 넷째,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류수경, 1992; 이계윤, 1992).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지향됨으로써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에 근거한다.

2. 장애이해교육에서의 전략과 문제점

태도는 고정 불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박창호 외, 1996). 따라서 일반인 혹은 일반학생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올바른 정보, 긍정적인 체험 등 다양한 노력과 접근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가 장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거나 혹은 이전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Thomason & Arkell, 1980). 즉, 일반학생들이 장애인과의 단순한 접촉이나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긍정적 태도를 지향하기 어려우며, 구조화되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접촉기회를 제공할 때 장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과의 구조화된 접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반학생들의 경우 간접체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Horne, 1988; Westervelt & McKiney, 1980; 홍승미, 1998). 이것은 학생들이 시각, 청각, 지체, 언어 등의 문제를 가졌을 경우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의 특성, 능력, 문제, 그리고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적어지고, 장애인을 더 잘 수용하게 된다(Bak & Siperstein, 1987). 이것은 학교상황에서 교사의 가르침으로 혹은 장애인에 관한 영화나 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Kelly(1997)는 장애관련 영화를 통해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개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일반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338명과 고등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623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성별, 통합교육, 영화나 책을 본 경험, 봉사경험, 학년별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327명(52.49%), 남학생은 296명(47.51%)이었으며, 장애아동과 같은 학급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02%,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우는 81.70%, 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6.92%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명	%
성별	남	296	47.51
	여	327	52.49
통합교육 경험	유	349	56.02
	무	274	43.98
영화 혹은 책을 본 경험	유	509	81.70
	무	114	18.30
봉사경험	유	230	36.92
	무	393	63.08
학년	중1	110	17.66
	중2	112	17.98
	중3	112	17.98
	소계	334	53.61
	고1	97	15.57
	고2	94	15.09
	고3	98	15.73
	소계	289	46.39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김미경(2006), 이한우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내용을 참조하여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특수교육 전공 교수 1명, 특수교육 전공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함께 수정문항을 재검토 한 후 긍정적 태도는 6문항에서 10문항, 부정적 태도는 43문항에서 24문항, 중립적 태도는 11문항에서 14문항인 총 48문항으로 문항수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태도에 대한 Cronbach α .822, 부정적 태도에 대한 Cronbach α .879, 중립적 태도에 대한 Cronbach α .634로서 전체 신뢰도 .828로 나타났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의 예시

구분	구성내용의 예시	문항수
긍정적 태도	장애인은 순수하다.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배울 수 있다. 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10문항
부정적 태도	장애인을 보면 무섭다. 장애인을 대하기 어렵다.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다. 장애인은 지저분하다.	24문항
중립적 태도	장애인은 나와 같은 존재이다.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나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	14문항
전체		48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30까지 대구·경북지역 중학생 338명과 고등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담당교사에게 전화로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빠졌거나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634부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한 총 623부를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검증, 분산분석, Tukey 사후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성별, 학년,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 봉사활동 경험 등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 부정적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통합교육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를 성별, 학년, 통합교육 경험유무,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유무, 봉사활동 유무 등에 따라서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1. 성별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학생 296명(47.51%), 여학생 327명(52.49%)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긍정적 태도에서 5% 수준($t=-2.548$, $p<.05$), 부정적 태도에서 0.1% 수준($t=4.01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남학생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중립적 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장애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에서 0.1% 수준($t=5.322$, $p<.001$)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남학생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체부자유아동에 대한 태도연구(노선옥, 2004)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태도연구(류수경, 1992; 이한우, 이원령, 2004)와 초등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연구(권원영, 1998)에서도 성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장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Yuker, 1988; 민은식, 1990; 여광응 외, 2004; 이종남, 1994)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및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성별에 따른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별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구분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긍정	남	35.44	5.89	-2.548*	.011
		여	36.61	5.62		
	부정	남	73.86	12.98	4.012***	.000
		여	69.95	11.26		
	중립	남	51.92	5.87	-.091	.928
		여	51.96	5.58		
중학생	긍정	남	36.23	6.20	-1.611	.108
		여	37.29	5.78		
	부정	남	71.49	13.42	.880	.379
		여	70.23	12.62		
	중립	남	51.64	5.58	-.737	.462
		여	52.11	5.94		
고등학생	긍정	남	34.54	5.35	-1.968	.050
		여	35.78	5.36		
	부정	남	76.41	11.96	5.322***	.000
		여	69.68	9.44		
	중립	남	52.36	6.07	.975	.330
		여	51.72	5.10		

*p<.05 ***p<.001

2. 학년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을 학년별로 나누면 중학생 334명(53.61%), 고등학생 289명(46.39%)이었다. 긍정적 태도에서 0.1% 수준(t=3.527, p<.001)과 부정적 태도에서 5% 수준(t=-2.208,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고등학생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중·고등학교에 따른 장애 태도

구분	학교	평균	표준편차	t	p
긍정적 태도	중 고	36.81	5.60	3.527***	.000
		35.18	5.39		
부정적 태도	중 고	70.82	12.99	-2.208*	.028
		72.99	11.26		
중립적 태도	중 고	51.90	5.78	-.171	.865
		51.98	5.66		
전 체	중 고	159.47	16.19	-.678	.498
		160.32	14.68		

*p<.05 ***p<.001

특히 각 학년별로 분산분석을 하였을 때,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집단간 1% 수준($F=3.287$, $p<.01$)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ukey 사후검정에서 고1학생과 중1학생, 고1학생과 중2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1과 중2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중학생과 고등학교 각각의 학년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장애에 대한 편견적 인식 시기는 대체적으로 4세경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윤혜경, 1991), 연령 혹은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선영과 공마리아(200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학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학년 혹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에 대한 거부감 혹은 부정적 태도가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권원영, 1998; 김종삼, 2000; 박순길, 전헌선, 2003; 이종남, 1994; 이한우, 이원령, 2004)도 있었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태도를 이규태(1981)는 부정적인 태도가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학교상황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더욱 장애인식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장애이해 프로그램 작성시 학년별 혹은 중·고등부로 나누어 보다 적합한 활동과 장애이해 수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이한우, 이원령, 2004). 각 학년에 따른 분산분석과 Tukey 사후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학년에 따른 장애 태도 F-검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Tukey HSD
긍정	집단간	538.677	5	107.735	3.287**	.006	고1-중1 고1-중2
	집단내	20222.575	617	32.776			
부정	집단간	1152.513	5	230.503	1.540	.175	
	집단내	92076.646	615	149.716			
중립	집단간	163.553	5	32.711	1.001	.416	
	집단내	20169.006	617	32.689			
전체	집단간	149.686	5	29.937	.124	.987	
	집단내	146844.4	606	242.317			

**p<.01

3.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중·고등학생의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 가운데 장애아동과 같은 반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49명(56.01%), 경험이 없는 경우는 274명(43.99%)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에 대한 중립적 태도에서 5% 수준($t=2.023, p<.05$)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장애아동과 직접 한 학급에서 생활을 한 학생들은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생활의 가능성 등과 같은 중립적 태도뿐 아니라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합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역으로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김창호 외, 2005; 류수경, 1992; 여광응 외, 2004; 이계윤, 1992)에서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혹은 통합경험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수용적 태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손상희(2001)는 접촉 경험의 양에 따라 긍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부정적, 중립적인 태도를 모두 나타내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좀 더 배려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Esposito 등(1986)은 장애인과의 접촉이 간접적 혹은 비구조화 되었을 때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조화될 때 보다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6> 통합교육 경험에 따른 태도

구분	통합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긍정	유	36.17	6.15	.552	.581
		무	35.91	5.28		
	부정	유	72.00	12.13	.411	.681
		무	71.59	12.45		
	중립	유	52.35	5.69	2.023*	.043
		무	51.41	5.72		
중학생	긍정	유	36.66	6.54	-.519	.604
		무	37.01	5.07		
	부정	유	71.28	12.33	.806	.421
		무	70.11	13.95		
	중립	유	52.32	5.67	1.627	.105
		무	51.27	5.88		
고등학생	긍정	유	35.46	5.52	.948	.344
		무	34.86	5.24		
	부정	유	72.94	11.86	-.126	.900
		무	73.11	10.65		
	중립	유	52.49	5.62	1.393	.165
		무	51.57	5.56		

*p<.05

4. 장애관련 영화 혹은 책을 본 경험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관련 영화 혹은 책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이러한 경험을 한 경우가 509명(81.7%), 그렇지 못한 경우는 114명(18.3%)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험이 장애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우에는 장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은 장애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장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이 긍정

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을 다룬 영화 혹은 비디오도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Kelly, 1997; Safran, 2000). 특히 Kelly(1997)와 Bookbinder(1978)는 영화를 통한 장애에 대한 태도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토의 혹은 강의를 듣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태도 변화전략과 함께 이용되어야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험 유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관련 영화 혹은 책을 본 후에 발표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장애에 대한 인식 형성뿐 아니라 긍정적 태도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7> 장애관련 영화, 책을 본 경험에 따른 태도

구분	영화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긍정	유	36.07	5.80	.180	.857
		무	35.96	5.68		
	부정	유	71.57	11.90	-1.075	.283
		무	72.96	13.81		
	중립	유	52.07	5.61	1.249	.212
		무	51.33	6.18		
중학생	긍정	유	36.93	6.15	.793	.429
		무	36.30	5.35		
	부정	유	70.18	12.58	-1.720	.086
		무	73.18	14.29		
	중립	유	52.06	5.86	.979	.328
		무	51.30	5.42		
고등학생	긍정	유	35.12	5.23	-.355	.723
		무	35.44	6.27		
	부정	유	73.14	10.91	.427	.669
		무	72.34	13.21		
	중립	유	52.21	5.30	1.207	.228
		무	51.09	7.09		

5. 봉사활동 유무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면, 장애관련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0명(36.92%), 경험이 없는 학생은 393명(63.08%)로 나타났다. 이들은 긍정적 태도에서 1% 수준($t=3.314, p<.01$)과 부정적 태도에서 5% 수준($t=-2.59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장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봉사경험에 따른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에 대한 차이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봉사활동에 따른 태도

구분	봉사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긍정	유	37.05	6.07	3.314**	.001
		무	35.47	5.53		
	부정	유	70.15	11.86	-2.593*	.010
		무	72.79	12.40		
	중립	유	51.59	6.03	-1.152	.250
		무	52.14	5.52		
중학생	긍정	유	38.24	5.93	3.099**	.002
		무	36.10	5.91		
	부정	유	69.02	12.34	-1.757	.080
		무	71.68	13.23		
	중립	유	51.71	6.15	-.408	.684
		무	51.99	5.59		
고등학생	긍정	유	35.95	6.00	2.093*	.037
		무	34.61	4.83		
	부정	유	71.36	11.42	-2.141*	.033
		무	74.21	11.03		
	중립	유	51.55	5.82	-1.264	.207
		무	52.39	5.43		

*p<.05 **p<.01

한편 중학생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경험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1% 수준($t=3.099$, $p<.01$)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 태도에서 5% 수준($t=2.093$, $p<.05$)과 부정적 태도에서 5% 수준($t=-2.14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송수영, 2001; 양홍식,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봉사활동의 참여 빈도나 참여시간 보다는 참여형태가 장애에 대한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혹은 물리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장애 관련 시설 방문 및 체험, 지원활동 등을 통해 장애를 인식하고 긍정적 태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 334명과 고등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통합교육, 장애관련 영화나 책을 본 경험, 봉사활동 경험유무에 따라 장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차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와 인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심리사회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장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장애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학생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적합한 장애이해 및 인식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학년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반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도 가능한 일찍부터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과 같은 반을 한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사회생활의 가능성 등 장애에 대한 중립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으면서도 이와 함께 부정적인 태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일반 중·고등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접촉에서 벗어나 좀 더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관련 영화 혹은 책을 본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장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영화나 책을 보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면 긍정적 태도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봉사활동 유무에 따라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접촉, 봉사활동 등을 통한 접근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교육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관련 시설방문,

장애인 외출 지원활동, 장애아동 학습지원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서 장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중·고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좋은 기회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일반교사 혹은 행정가의 장애인식 교육 여부와 노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중립적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장애인식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학생이 대구·경북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대상 지역을 좀 더 넓게 선정하고, 초등학생까지 포함하여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변화를 여러 변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현장 및 기타 관련 기관의 협조 아래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균, 조홍중(2003). **장애이해와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강영심 외(2005). **통합교육**. 서울 : 학지사.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 교육부.
- 권원영(1998). “특별한 친구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변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주석(2002).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및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의 지역별 차이에 따른 교육적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7(3), 1-20.
- 김미경(2006).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하(2001).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한국적 상황과 딜레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2), 1-22.
- 김영성(1999).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급 아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삼(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창호, 김지숙(2005).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 태도 비교 연구. **특수교육연구**, 12(1), 263-281.
- 나선희, 김자경(2004). 중학교 재량활동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 **특수교육학연구**, 38(4), 209-229.
- 노선옥(2004). 중증장애 학생 통합을 경험한 일반 학교 학생의 중증 지체부자유 학생에 대한 태도.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69-85.
- 류수경(1992). 장애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직장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동팔(1997). 장애인의 이미지 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민은식(1990).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연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삼육재활원.
- 박미란(2000).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순길, 전현선(2003). 통합교육 환경에서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또래 아동의 인식태도.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2, 121-137.
- 박승희(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 박창호 외(1996). **현대 심리학 입문**. 서울 : 정민사.
- 변찬석, 서경희(1998). 일반학급에서의 경도장애아의 사회적 수용도. 특수교육연구, 5, 69-84.
- 손상희(2001). 지체부자유아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태도 경향.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7, 153-176.
- 송수영(2001). 장애인과의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양홍식(2005). 봉사활동경험 유무에 따른 고등학생의 장애인식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여광응 외(2004). 장애이해 프로그램이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1), 15-37.
- 오유석(2001). 통합교육 경험이 초등학교의 장애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우이구 외(2004). **장애이해 교육**.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 윤혜경(199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청각 자료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계운(1992). 재가중증장애인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규태(1981). **장애자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 복지**. 아산 :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 이소현, 박은혜(2005). **특수아동교육: 통합학급 교사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침서**. 서울 : 학지사
- 이종남(1994).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한우, 이원령(2004).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471-492.
- 정선영, 공마리아(2004). 통합교육환경 하의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및 통합교육환경 인식에 대한 변화 비교 연구 : H대 대학생의 1년 후 추후 조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3), 207-233.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준영(2002). 장애접촉경험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장애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홍중(2002). 지체부자유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태도.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9, 247-265.
- 최경실(2001). 통합교실의 "우정형성 프로그램"이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세민(2004). 일반학교 내의 통합교육 개선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천과제**, 123-160.
- 홍승미(1998). 초등학교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ak, J. J., & Siperstein, G. N.(1987). Effec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s behavioral competence on nonretarded peer's behavior and attitude: Toward establishing ecological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2, 31-39.
- Bookbinder, S.(1978). *Mainstreaming: What every child needs to know about disabilities*.

- The Meeting Street School Curriculum for Grades 1-4*. Boston: Exceptional Parent Press.
- Esposito, B. G., & Reed, T. M.(1986). The effects of contact with handicapped persons on young children's attitudes. *Exceptional children*, 53, 224-229.
- Fisher, D., Pumpian, I., & Sax, C.(1998).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about and recommendations for their peer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Journal of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3, 272-280.
- Horne, M. D.(1988). *Modifying peer attitudes toward the handicapped: procedure and research issu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Kelly, E.(1997). Movies-a unique and effective tool for special educators. *CEC Today*, 3(8), 12.
- Safran, S. P.(2000). Using movies to teach students about disabiliti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2(3), 44-47.
- Schulz, J. B., & Carpenter, C. D.(1995). *Mainstreaming exceptional students: A guide for classroom teacher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Thomason, J., & Arkell, C.(1980). Educating the severely/profoundly handicapped in the public school: A side-by-side-approach. *Exceptional Children*, 47, 114-122.
- Thousand, J. S., & Villa, R. A.(1992). Collaborative teaming: A powerful tool in school restructuring. In R. A. Villa, J. S. Thousand, W. Stainback, & S. Stainback(Eds.), *Restructuring for caring and effective education*(pp. 73-106).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Westerwelt, V., & McKiney, J.(1980). Effects of a film on non-handicapped children's attitude toward handicapp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46, 294-296.
- Yuker, H. E.(1988). The measurement of attitude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Psychometrics and Scales.

A Study of Primary Factors and Attitude toward Disability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Lee, Won Ryeong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how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nk about disability according to sex, grade, inclusion education, experience of watching movies or reading books about disabilities, and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its results, we tried to find the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d to attitude toward disability of students. In the survey, 334 middle school and 289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e questionnaire was constituted with questions of 10 positive attitude, 24 negative attitude, and 14 neutral at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disability according to sex and volunteer activities.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neutral attitude according to inclusion education.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 toward disability according to grade. Specially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high school first grade and middle school first & second grade.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disability according to experience of watching movies or reading books about disabilities.

Key Words : Disability, Positive Attitude, Negative Attitude, Neutral Attitude